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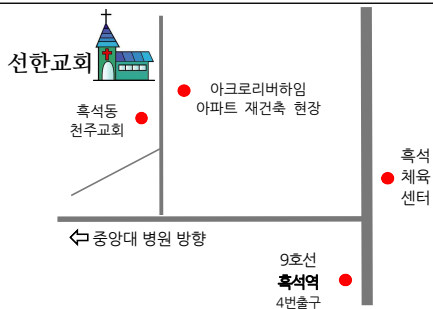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0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금요기도회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리아회 오후 1: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1:00
	*월삭새벽예배 6:00		에스더회 오후 1:00
셀 가족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성규 (러시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선 교 사	양병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권 인 혁		이금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관 리 장 로	손석규
장 로	유 신 웅 (집사장)		
	김 대 희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박 희 태		(2호) 세종 선한교회
	조 윤 익		신원섭 목사
	한 배 선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성령을 따라 행하라 (갈 5:16)

Walk By The Spirit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제자삼기(1인) 성경강론(1장)

삶 의 방 식 (빌 4:1-7)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암 송 구 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브리서 4:16)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9:3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오전 11:00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37장 (통일찬송가 37장)	
교 독 문	교독문 40번(시편 96편)	
찬 양 과 경 배	268장 (통일찬송가 202장)	
예 배 기 도	(1부) 이상근 집사 (2부) 김대희 장로	
찬	양	드림성가대
말 씬 봉 독	빌립보서 1:20~26	
설	교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 (임춘배 목사)
헌 금 드 림	심지숙 안현미 오성애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주를 위한 이곳에	
축	도	임춘배 목사
송	영	드림성가대
성 도 의 교 제	다함께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말 씬 봉 독	시스라의 최후 (사사기 4장)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1. 제 직 회	오늘 예배 후 제직회가 있습니다. 제직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 당 예 배 준 비 위 원 회	오늘 제직회 후 입당예배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위원장 : 박영근 집사 위원 : 김명옥권사, 강보선집사, 이용재집사, 방성자집사, 장수정집사, 최영석집사, 손영삼집사, 김희상집사, 강병국집사, 윤종성형제	
3. 성 경 암 송 대 회	11월 19일 2부 예배 후 성경암송대회 실시 범위 : 2017년 암송구절 뒷면 시험방법 : 전과 동일(시험지 작성 후 제출) ※ 유초등부, 청소년부, 65세이상 별도 시상	
4. 부 서 별 총 회	11월 넷째 주에 부서별 총회가 있습니다.	
5. 수 험 생 을 위 한 특 별 새 벽 기 도	일 정 : 10월 23일 ~ 11월 15일 오전 5시 30분 수험생 : 이우정(이기환,조덕순), 이하나(안기연)	
6. 서 울 남 부 지 방 회 월 레 회	일시 : 11월 7일(화) 장소 : 선한교회	
7. 정 오 기 도 회	매일 점심(12시30분)에 교회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건축을 위한 기도문을 이용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체크하고 계시는 "기도문 읽기표"를 입당예배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예 배 준 비 안 내 및 정 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초·인천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흑석셀입니다.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7년 성경강론 범위						
11/5	11/6	11/7	11/8	11/9	11/10	11/11
	사사기 2장	사사기 3장	사사기 4장	사사기 5장	사사기 6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쁨과 감사로 흘러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교회 건축의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일하시기를 담임목사님의 심령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지혜와 능력을 날로 더하시기를
--------------	---

가정예배

“부요가 가져오는 영적 침몰”

찬송 : ‘나의 영원하신 기업’ 435장(통 492장)

본문 :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 사데는 아시아에서 가장 찬란한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기원전 1200년경 세워져서 부요하고 능력 있는 리디아왕국의 수도가 됐습니다. 특별히 사데는 그곳에 나는 금으로 말미암아 전설적인 부의 도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보석산업이 발달했으며 직물과 염색공업, 최첨단 유행산업이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신비한 온천이 있어서 여가를 즐기려는 자들과 병을 고치려는 환자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경제적인 호황으로 세계에서 최초로 화폐제도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데는 사치, 허영, 음란, 퇴폐, 물질 만능이 판을 치는 도시였는데 바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런 지역에 세워진 사데교회는 결국 그 지역을 변화시키기보다 오히려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하려면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교회다워지는 일이 선행돼야 합니다. 사데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지 못하고 변질됐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부요’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인생의 목표로 삼고 추구하며 축복의 상징으로 여기는 것이 ‘부요’입니다. 부요는 많은 사람이 복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복이 되기보다는 저주가 되는 경우가 더 많고 신앙에 좋은 영향보다 나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부요는 교회를 죽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부요가 교회를 죽게 할까요. 다른 아니라 돈은 사람이 신으로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돈을 섬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두 신을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요한 시대를 살면서 돈의 맛을 경험하게 되면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만 좋은 줄 알았는데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을 가져 보니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서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돈을 갖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부요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며 서서히 우리 영혼을 죽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영혼이 죽어가고 있어도 돈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 보니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미처 알아채지 못할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문제없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사데교회도 그랬습니다. 아무도 문제없다고 했고 자기들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사데교회와 같지 않은지 돌아보며 부요를 조심해야 합니다. 부요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지 않게 되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은혜의 말씀

제목

그리스도인의 삶과 죽음의 문제 (빌1:20-26)

서론

사도바울은 사는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바울의 관점

- (1)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맞본 사람이기에 죽는 것도 유익으로 여김
- (2) 바울이 사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견고히 세우는 것
- (3) 죽고 사는 문제와 사명문제를 해결해야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본론

2. 교훈

- (1)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천국의 기쁨을 소유하자.
- (2) 주님께서 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음을 잊지말자.
- (3) 편한 길보다 주님과 교회를 위해 무엇이 더 유익한 것인지를 생각하자.

결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 사는 것이 더 유익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예배 섬김이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1부예배기도	이상근 집사	김명선 집사
2부예배기도	김대희 장로	유신웅 장로
헌 금 위 원	심지숙 안현미 오성애	심지숙 안현미 오성애
안 내	서초, 인천셀	흑석셀

매일 성경 강독		하나님의 진노의 이유	날짜 : 11월 6일
찬양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찬송가 259장/통일 찬송가 193장)		
통독	사사기 2장		
본문 내용	여호와와 사자가 보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거민이 그들의 가시와 울무가 될 것을 전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소리를 높여 울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가 지나가자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을 섬기자 여호와와 진노가 닥칩니다. 사방의 대적에게 이스라엘이 노락을 당하던 중, 여호와께서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 사사를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언약을 지키지 않음으로 그들을 향한 진노는 계속됩니다.		
생각해보기			
1	하나님의 책망(1-5) (1)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불순종하여 가나안 족속과 혼합, 동화된 결과 저들과 언약을 맺으며 우상을 섬기게 됨 (2)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책망하고 저주를 선포함 (3) 이스라엘은 통회하며 다시 하나님께 예배함 (4) 이것은 여호수아 사후 백성들의 신앙상태를 보여주고 이스라엘 역사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 될 것인지를 암시해 줌		
2	타락과 구원의 역사(11-23) (1) 사사시대의 패턴: ①이스라엘의 범죄 ②하나님의 심판 ③백성들의 회개 ④구원(사사) ⑤범죄) (2)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간과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신앙을 저버릴 때 하나님의 진노는 필연적으로 임하게 된다. (3)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고 부르짖는 자들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구원을 베푸신다.		
핵심 단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도하시며 다스리심에 있어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사용하시지 않고 천사들을 통하여 각 개인을 지도하신다면 더욱 더 효과적이 아닐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히 세워서 자기 백성을 위해 영적으로 더욱 유력하게 일하시는 방면이 있다. (1)그것은, 지도자를 모본으로 세워주셔서 그들의 신앙 생활이 구체화되도록 함이다. 사람들은 자기와 같은 연약한 인간 존재가 하나님의 영력을 받아 구원 받는 것을 볼 때에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자 하는 용기를 얻는다. 성경은 확실히 이 방면을 제시하여 준다. 곧, 성경이 우리에게 기도의 용기를 주기 위하여 말씀하기를, "엘리아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 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고 하였다. (2)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시는 또 한가지 이유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주시기 위한 체휼 때문이다. 지도자의 눈물이 피지도자들의 눈물을 발생시키고, 지도자의 사랑의 수고가 지도를 받는 자들의 마음 속 깊이 아름다운 덕행의 동기를 발생시킨다. 이것은 오직 인간인 지도자를 통로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천사들은 고난 당하는 일도 없고 눈물도 없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셀 모임 나눔지		“중보 기도와 말씀의 다림줄”
찬양과 기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208장/통 289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미국 독립군의 총사령관이던 조지 워싱턴은 극한 상황 속에서도 병사들과 똑같은 병영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훈련시켜 마침내 정예 군대가 되게 했으며, 결국은 미국의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국민의 성화에 의해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벨리포지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워싱턴은 그의 생애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해 역사적인 현장으로 지금도 고이 보전하고 있습니다. 이 공원 안에 워싱턴 기념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조지 워싱턴의 기도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지도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진정한 형제애를 갖게 하시옵소서. 지도자들이 솔선하여 정의로운 생활을 하게 하시고, 자비를 사랑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겸손히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절 그의 비서였던 로버트 루이스의 증언에 의하면, 대통령의 일과는 새벽 4시에 서재에 들어가 성경이 펼쳐져 있는 작은 탁자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 문태홍, 「고난을 승리로 이끄는 88가지 이야기」(이레서원, 1998) 조지 워싱턴의 기도 생활 및 워싱턴 기념교회에 기록된 그의 기도를 통해 배우는 교훈은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아모스 7:1~9	
묵상포인트	한 사람의 중보 기도자가 위기를 기회로 바꾼다. 하나님은 심판을 앞둔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가 드린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심판의 뜻을 두 번이나 돌이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얻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을 더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이라는 다림줄로 북 이스라엘을 측량하셨고, 오늘 우리를 측량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삶의 기초요 절대 규범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의 다림줄이 내려올 때 부끄러울 것 없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말씀에 기초해 공의와 정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르게 쌓아 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다림줄 심판 환상에서 다림줄은 무엇을 의미하나요?(7~8절) 다림줄 심판으로 북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9절)	
적용하기	하나님이 내 삶에 다림줄을 내리실 때 문제없다고 자신할 수 있나요? 바른 신앙과 삶이 되기 위해 회복해야 할 부분은 어디인가요?	
함께 기도하기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를 들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소서. 진리의 다림줄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죄의 길을 버리고 바른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성경 강독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날짜 : 11월 10일
찬양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찬송가 410장/통일 찬송가 468장)		
통독	사사기 6장		
본문 내용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자 칠 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붙이 십니다. 식량을 남겨 놓지 않고 수탈해 가는 미디안의 폭정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한 선지자를 보내사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치 않았음을 지적하십니다. 여호와와 사자가 기드온에게 찾아와 큰 용사로 호칭하며 사사로 부릅니다. 기드온은 자신의 연약함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낼 그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표징을 구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살롬이라고 합니다.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신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바알의 단을 헐고, 그 옆의 아세라 상을 찍어 그 나무로 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십니다. 기드온은 이 말씀에 순종하여 행합니다. 다음날, 이 일로 소동이 일어나고, 기드온에게 여룹바알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전투에 임하는 기드온은 자신에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맡기신 확신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양털 뭉치로 두 번의 표징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에 두 번 모두 응답하셨습니다.		
생각해보기			
1	드보라의 승전가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곤경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1-12) (2) 시스라와의 전투시 상반된 자세를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적극 참여와 수수방관)과 승리의 장면을 묘사(13-23) (3) 시스라의 최후와 시스라에 대한 그 모친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사실을 노래함(24-31) (4) 하나님의 백성은 곤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하나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핵심 단어	여호와 살롬 - 이에 해당하는 원어 '예호와 살롬'은 '여호와와 평강이시다' 또는 '평강의 여호와'란 의미이다. 앞서 여호와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안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23절), 이 말의 원어 역시 '살롬', 곧 '평강'이다. 이로써 알 수 있듯이 본절에서 기드온이 쌓은 단은 하나님과의 화해의 제단이고 구원의 제단이었던 것이다. 한편 바울이 하나님 나라의 주요 속성중 하나를 평강이라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평강의 왕이라 불리운것 같이, 평강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으로서 성경 전반에 걸쳐 흐르고 있다. 그런데 특히 불안과 혼란이 팽배해 있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과 가정과 나아가 전 세계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가 필수적으로 요청된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매일 성경 강독		범죄에는 심판, 회개에는 구원		날짜 : 11월 7일	
찬양 통독		예수 따라 가며 복음 순종하면 (찬송가 449장/통일 찬송가 377장) 사사기 3장			
본문 내용		여호와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를 가르치시고자 가나안의 열국들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이때 이방 족속과 통혼하며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 임의 압제를 받고, 이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웃니엘을 사사로 불러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와 목전에 악을 행하므로 모압 왕 에글론으로 그들을 18년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그는 모압 왕 에글론과 모압 용사 일만 명을 죽이고, 그 땅은 팔십 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생각해보기					
1		남겨진 가나안 족속들(1-6) (1)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가르쳐 알게 하시려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 놓으심 (2) 그들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시돈사람, 히위 사람들 (3) 이들과 통혼하며 그들의 신들을 섬기며 가나안 족속에 동화되어 감 (4) 성도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하여 안주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며 부단히 싸워야 한다.			
2		사사 웃니엘, 에훗, 삼갈(7-31) (1) 첫 번째 사사인 웃니엘(유다지파)은 메소보다미아의 지배하에 8년동안 억압받고 있던 이스라엘 구함 (2) 두 번째 사사인 에훗(베냐민지파, 왼손잡이)은 18년동안 모압의 압제하에 있던 이스라엘을 구함 (3) 세 번째 사사인 삼갈(납달리지파)은 블레셋의 침략을 소모는 막대기로 물리침 (4)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면 결국 승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5) 비록 인간적인 조건이 별로 뛰어나지 못해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탁월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핵심 단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 '그것'이란 1절에 언급된 '전쟁'을 의미한다. 그런데 본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가나안 족속을 남겨 두신 본래 이유와 조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 놓으신 이유는 분명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본절에서는 가나안족속을 남겨 놓은 이유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쟁의 경험을 쌓게 하려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전쟁을 경험해 보지 않은 유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의 기술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전쟁을 통해 하나님 당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알리시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여호수아 당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전쟁의 승패가 사람수의 많고 적음이나 병기의 우수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와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익히 체험하였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사후 세대들에게도 남아 있는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을 통해 오직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모든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데 있음을 가르쳐 주려 한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음성 외에는 (찬송가 446장/통일 찬송가 500장)
통독	사사기 4장
본문 내용	에훗이 죽은 후에 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기셨습니다. 이때 사사로 부름 받은 드보라가 바락에게 출전을 명하자, 바락은 드보라와의 동행을 조건으로 함께 갑니다. 다불 산에서 바락에게 패배한 시스라는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러 도움을 요청합니다. 야엘은 장막 말뚝으로 시스라를 죽이고,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합니다.
생각해보기	
1	여사사 드보라와 조력자 바락 (1) 하술 왕 야빈이 20년동안 이스라엘을 압박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호소를 들으시고 사사 드보라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심 (2)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브라임지파,여성)는 조력자 바락과 함께 야빈의 많은 군사와 철병거 900승을 상대로 대승을 거둠 (3) 전쟁의 승패는 오직 하나님과 그분을 의지하는 신앙에 달려 있다. (4) 드보라를 하나님 세우신 사사로 믿고 순종한 바락의 신앙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온 또하나의 이유
핵심 단어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 이와 같이 바락은 반드시 전쟁에 드보라와 함께 출전 하겠다고 고집했다. 그 까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견해가 분분하지만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크게 세 견해로 압축된다. (1)바락이 드보라의 예언을 믿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2)바락은 대적들과 전쟁하는 것이 두려워 예언의 능력을 지닌 여선지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 (3)바락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대하여 자신이 그 소명을 감당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드보라와 동행하기를 요청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세 견해 중 가장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견해는 세번째 해석이다. 왜냐하면 모세도 과거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을 때 자신의 약점을 앞세워 거절하고자 시도했으며, 사사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을 때 자신의 비천함을 이유로 이를 거절하고자 시도했기 때문이다. 사실 만약 바락이 불신앙적이거나 대적들을 정말로 두려워 했다면 결코 하나님과 드보라에 의해 야빈과의 전쟁을 수행하는 데 선봉장으로 선택될 수 없었을 것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의 진리위해 십자가 군기 (찬송가 358장/통일 찬송가 400장)
통독	사사기 5장
본문 내용	드보라와 바락은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광야에서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돌아보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행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이 전쟁에 참여한 여러 지파 사람들의 공헌을 노래합니다. 이스라엘에 평화가 임한 것은 그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임을 시적으로 표현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시스라를 죽인 야엘을 축복하며 칭찬합니다.
생각해보기	
1	드보라의 승전가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 곤경에서 구원하신 사실을 찬양(1-12) (2) 시스라와의 전투시 상반된 자세를 보였던 백성들의 모습(적극 참여와 수수방관)과 승리의 장면을 묘사(13-23) (3) 시스라의 최후와 시스라에 대한 그 모친의 기대,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로 이스라엘이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된 사실을 노래함(24-31) (4) 하나님의 백성은 곤경을 당하나 궁극적으로 승리하고, 악인은 일시적으로 번성하는 듯하나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된다.
핵심 단어	메로스를 저주하라...치지 아니함이니라 - '메로스'란 지명은 본절 외에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주받아 마땅한 메로스의 죄는 분명히 나타나 있다. 이에 근거해 볼 때 '메로스'는 기손 강 부근에 위치해 있었던 마을임에는 분명하다. 혹자는 이를 사마리아 북방 약 20km지점에 위치한 '메루스'일 것으로 추정한다. 그리고 또 다른 이는 다불 산 남방에 위치한 '케플 무슬'일 것으로도 추정한다. 아무튼 메로스 거민은 압제자의 손에서 구원받고자 싸우는 이스라엘을 도와줄 의무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도 메로스의 주민은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을 돕지 아니하므로 간접적이거나 폐해를 끼쳤었다.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메로스를 저주하였는데, 이는 이스라엘을 적극적으로 도운 탓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